

# Living the Lotus 12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5  
VOL. 243



입정교성회 국제 불교 교회 (IBC)  
마음을 잇는, 외국인을 위한 불교 커뮤니티



회원 집 방문



동경국립박물관 견학



법좌수행



꽃꽂이 교실



日本語クラス

Living the Lotus  
Vol. 243 (December 2025)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mailto: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 닛코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 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 함께 연주하는 하모니② 요구되는 자각과 역할

입정교성회 회장  
니와노 니치코



### 이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세포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 다른 세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장기(臟器)가 작동할 수 있다. 장기도 자기 일을 하면서 다른 장기를 돕고 있다’(『치치(致知)』 2011년 1월호)는 것은, 츠쿠바 대학의 명예 교수인 무라카미 카즈오(村上和雄) 선생의 말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세계의 현 상황에 비추어 사람이나 국가의 조화를 어지럽히는 마음과,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수준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각자가 타(他)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들의 세포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본래 가진 조화의 힘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세계 평화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음 어느 한 가지라도 갖춘다면 인류의 조화도, 세계 평화도 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하루를 감사로 보내고 가족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며, 그런 모습이 이웃에게도 영향을 주어 지역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어울린다. 게다가 평화롭고 누구나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나라로서, 다른 나라로부터도 신뢰받고 화목한 관계를 구축한다. 예부터 유교(儒敎)에서는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특히제가(집안을 잘 다스려 바로잡는 것)를 중요하게 여겨 왔던 것도, 가정이라는 세포가 건전하면 그것이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못자리’라고 하는 것도, 가족이 서로 사이가 좋아야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아는 인격이 길러지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에 의해 세계 평화라는 결실이 찾아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진정한 의미

그런데 여러분은 평소 각자의 가정과 지역,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요? 다른 사람을 돕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자각하고 계신지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포의 예를 들면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이타(利他)의 행위를 함으로써 조화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장점과 역할을 판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의 소리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도, 교향악단의 일원이 된 것처럼 각자가 서로의 소리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내 음량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음이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마음을 쓴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온하게 해 주는 하모니가 탄생합니다.

덧붙여 이론물리학자인 사지 하루오(佐治晴夫)씨가 ‘혼란한 사회를 구하는 말’이라며 가르쳐 주시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를 모두가 솔직하게 전한다면 그 조화는 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또 개조님께서서는 ‘자기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국민에게, 세계 사람들이 진심으로 공명(共鳴)해 줄 리가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조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애국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자국 우선주의나 패권주의를 배경으로 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애국심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고 싶다고 염원하는 마음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자손에게 남기고 싶다고 바라고, 다른 나라 사람도 제각기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전쟁같은 것은 할 수 없다고 협조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타를 존경하는 일이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을 돌이켜보고 부끄러워함으로써 향상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애국심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인간다운 삶<인도(人道)>를 잊지 않으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서로 빼앗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행복’을 세상에 가져와서 다음 세대에 맡기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SNS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에 의해 구제 받았으면 합니다

입정교성회 불교 교회(IBC)  
샌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출신, 일본재주)

### 일본에는 언제 어떤 이유로 오게 되셨습니까?

저는 2016년 4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메단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을 동경해 왔기도 해서, 일본 정부(문부과학성)의 국비 대학진학을 목표로 장학금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해 12월에 합격하여 다음해인 2017년 4월에 18살로 국비장학생으로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학교와 전문학교에서 일본어와 회계 업무 등을 배우며, 2020년4월에 고마자와 대학 (駒澤大學) 경제학부에 편입하여 2022년 3월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재학중에는 코로나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수업과 시험이 온라인이었던 점, 또 서클 활동 등을 통해 친구 만들기도 어려워, 기대하던 캠퍼스 생활을 만끽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현재는 동경에 있는 일본 식품 수출·와인 수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때때로 국내외를 방문하고 출장을 갑니다.

### 입정교성회에는 어떻게 입회를 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입정교성회에 입회한 것은 2019년 3월, 계기는 뽑기였습니다. 2018년, 2019년 정월 첫 참배를 하러 간 신사에서 뽑기를 뽑았는데 신기하게도 2년 연속으로 '신께 다가가세요'라는 뽑기를 뽑았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교도가 거의 90%를 차지합니다만, 제가 살고 있던 메단에는 불교도가 많고 불교사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불교를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뽑기는 아마 부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일거야'고 받아들이고는 바로 인터넷으로 'Buddhist community(불교도 커뮤니티)'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IBC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으로 IBC 선데이 서비스(일요 예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상지 수양 도량을 참배했을 때, IBC 멤버 여러분께서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 주셨던 것이 기뻐고, 타타미로 된 넓은 수양도량을 통해 일본의 전통 문화를 깊이 느꼈는데, 그 때가 인상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IBC영어 승가와 함께 동경 국립박물관 「운경전(運慶展)」을 방문한 샌드라와티님 (앞줄 중앙)

### 지금까지 IBC행사나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IBC에서는 주말마다 영어그룹을 대상으로 한 모임이 있는데, 저는 매월 4째 일요일 식전에서 IBC강사님인 카와노 마사토시(河野公利)씨의 강연 교재나 개조님 말씀을 읽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읽게되는 교재 내용이나 개조님의 말씀은, 신기할 정도로 제 마음 상태와 일치하는 점이 많아 마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다"며 새로운 알아차림과 배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우란분회에서는, 여러분과 즐겁게 봉 오도리를 춘 후에, 제가 선곡한 마이클 잭슨 'Heal the World'를 참가자 전원이 함께 부르며, '전 세계를 치유시키자'는 평화에 대한 기도를 담아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 일본어를 비롯해 영어나 중국어 등, 어학에 능통하시네요!

저의 고향 메단은, 푸젠성(福建省) 출신인 중국계 주민의 비율이 높은 도시로, 푸젠어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국어는 푸젠어,

그리고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 또한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를 습득했습니다. 또한 제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릴때부터 어머니와 보디랭귀지로 대화를 나누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수화를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행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것은 반드시 변화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제행무상의 가르침이 구제의 근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의 슬픔과 고통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언제까지나 붙잡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행무상의 가르침을 배웠을 때,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집착에서 벗어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해방감으로 충만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를 잊지 말고 변화에 동요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내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이 가르침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입정교성회에서 배운 것 중에서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IBC 달마 서클(법좌)에서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뀐다'고 배웠을 때, 아주 감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피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입정교성회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깊이 주시하고 나의 어디를 바꾸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지를 생각하며 노력한다 - 이렇게나 적극적이고 자비심에 기반한 자세와 삶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입정교성회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언제나, 어떠한 때에도 '에브리원 이즈 웰컴'하며 상냥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커뮤니티라는 부분입니다. 달마 서클에서는 서로의 경험과 고민, 슬픔, 고통, 기쁨등을 함께 나누면서 법화경 가르침에 근거한 가르침과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관례와 유대가 굳건한 승가가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라는 점, 장래의 꿈을 들려주세요.**

저는 현재, IBC홍보활동의 일환으로 SNS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 연꽃과 불상 등의 영상, 치유의 BGM등을 적극적으로 발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BC승가 여러분과 'IBC젊은 팀을 만듭시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를 사용하는 멤버는 십여명입니다만, 앞으로 SNS를 더욱 알차게 운영해서 젊은 세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입정교성회 가르침을 발신해 나갈 겁니다. 가능하면 이 SNS가 치유의 장소, 소통의 장소가 되어 그것을 기연으로 해서 법화경 가르침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구제 받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



IBC□□ Bon Festival□ 참가한 샌드라와티님 (2째줄 오른쪽에서 4번째)



##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나를 잊고, 먼저 남부터

입정교성회 니와노 닛교(庭野日敬)



그런데 사람들을 불도로 인도할 때 중요한 마음가짐 으로서는 ‘이 분께서 진정한 행복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자비심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에산(比叡山)에 엔라쿠지(延曆寺)를 창건하여 일본 천태종의 개조가 된 분이 전교대사 사이초(最澄 767-822)입니다. 그 전교대사가 ‘스스로를 잊고 타를 이익 되게 함은 자비의 극치이니’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 음미해보고자 합니다.

나를 잊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한다. 고민을 해결해 준다. 그것이 ‘보살’의 행위’ 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가르침(法)에 들지 않는 한, 인생의 삶이 정돈되지 않고 암중모색으로 우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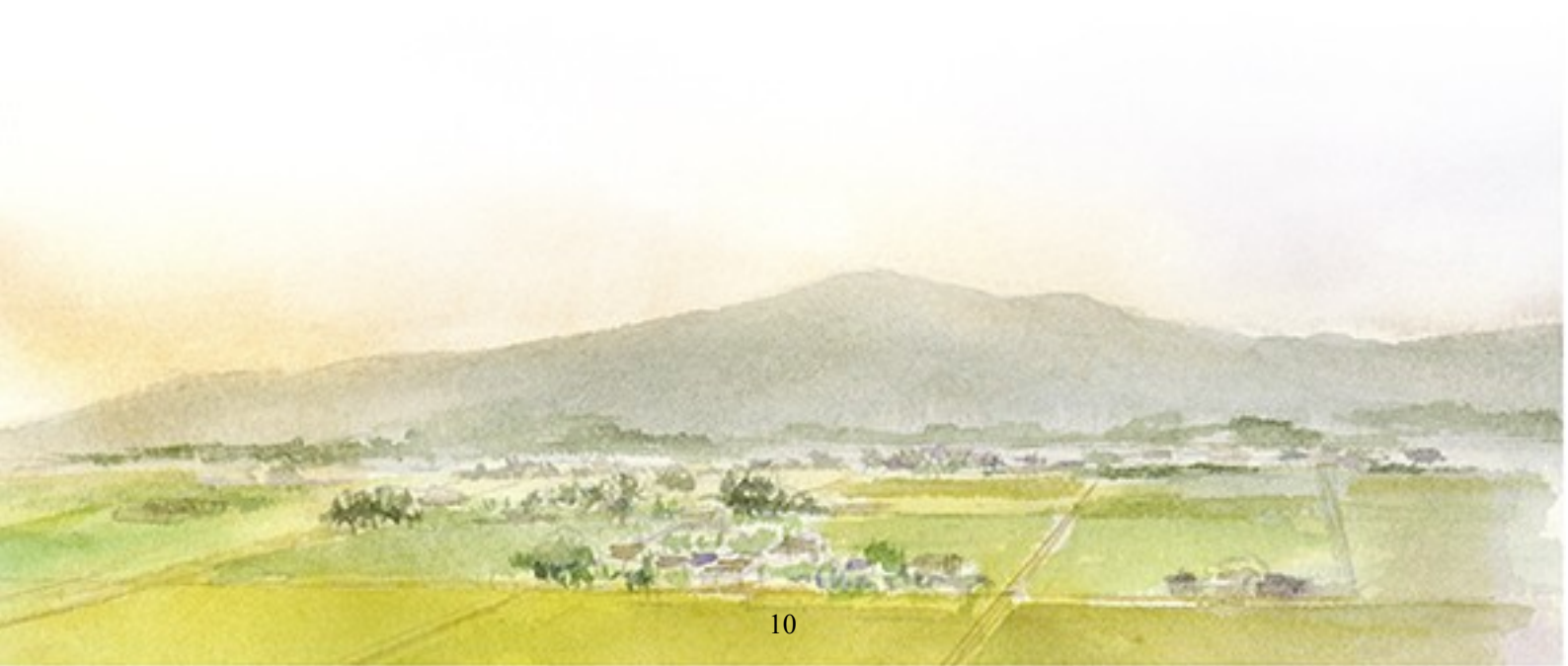
좌왕하며 주위에 대한 변화에 일희일우 합니다. 하지만 불법에 들면 하나의 길, 즉 타를 위하는 기쁨을 자각하여, 마음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길에 태워주고 싶다는 자비심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인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읽고 계시는 분의 대부분은 이미 그 ‘길’을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인도된 사람 일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 근원은 대은교주석가모니세존(大恩教主釈迦牟尼世尊)의 인도인 것입니다만, 여러분께서는 그 은혜를 실감하고 계시나요? 좀처럼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디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누군가를 인도해 보세요.

‘아이를 가져서 알게 되는 부모의 은혜’라는 말도 있듯이, 입회 자식을 가져 보면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의 은혜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 있는 석가모니의 은혜도 실감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 분도 행복해 졌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법화경 가르침을 전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대은(大恩)에 보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니와노 닛쿄 헤세 법화집1 『보리의 싹을 틔움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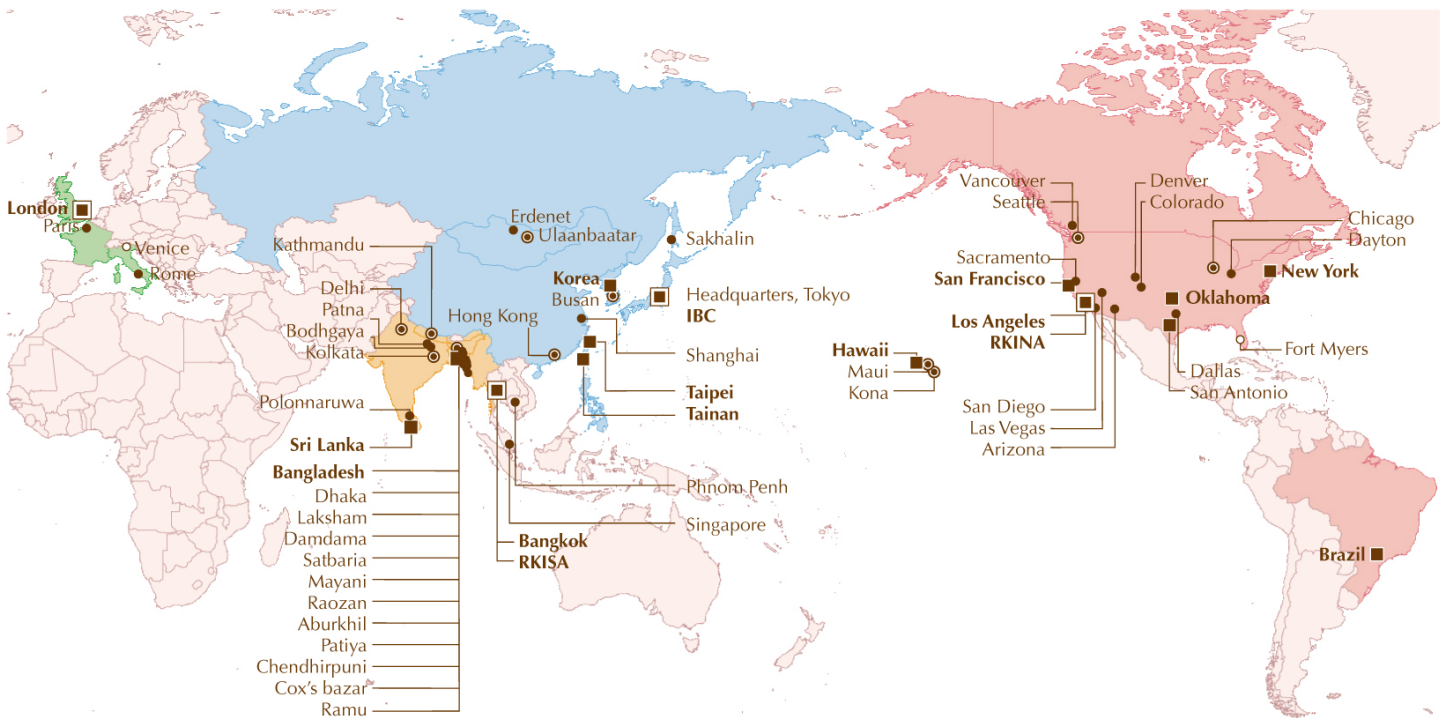


#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mailto: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